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열어 명품화·다양화·마케팅 등 방안 제시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국내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삼한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부군수(이근삼) 주재 사업단 연구소,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진안 홍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안홍삼의 명품화 및 다양화, 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단의 중요성 재확인 및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지원화를 위한 혁신안으로 첫 번째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들 수 있다.

현재 사업단의 인력은 단장을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되어 홍삼한방센터 관리, 100% 진안삼 수매사업, 전국 진안홍삼 매장 관리, 진안홍삼 홍보·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개인별 성과 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패널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추진한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 풍토를 조성하고 업무실적 및 효율성 증대를 진안 홍삼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혁신 계획이다.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면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0% 진안삼 수매사업의 경우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추진 시 발생했던 수매농가 선정 및 가격결정 어려움, 증상비용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인삼가만 전문가, 인삼농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0% 진안삼 수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의 운영 및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 공무원을 파견하여 전반적이고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세번째로 진안홍삼의 판매 활성화 계획이다.

"진안홍삼"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이어 2016년 소비재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마을대표축제 4개 선정

삼례 비비락축제·원구만 해넘이 연날리축제·용진 옥수수밭 미로축제·비봉 달이실 합굿축제

완주군이 사라져가고 있는 마을 문화·향토자원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소재로 특색있는 마을 대표축제 4개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특색있는 마을 대표축제 공모 결과 6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마을 대표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축제에는 ▲삼례 비비락마을 비비락축제 ▲원구만 해넘이 연날리축제 ▲용진 순지마을 구불구불 옥수수밭 미로축제 ▲비봉 달이실 합굿축제가 있다.

특히 지역의 휴경지를 활용해 주민들이 합심해 옥수수 밭으로 만들어 아이들의 학습 체험장

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로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순지마을 구불구불 옥수수밭 미로축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삼례 비비락 축제와 비봉 달이실 합굿축제는 마을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보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얻어 작년 이어 올해 2회 연속 선정됐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올해 마을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내용과 규모에 따라 300~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2017년부터는 마을축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고 축제 일몰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완주군, U-CITY 통합 플랫폼 공모 선정

8억여원 들여 방범·방재·환경·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완주군에서는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U-CITY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유비쿼터스 안전한 완주 만들기 기반을 구축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U-CITY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2016년 사업 대상으로 강연도 원주시와 함께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최초로 완주군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8억1,000여만원이다.

국토교통부 U-CITY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센터 및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도시 관리 효율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2016년도 CCTV 통합관리시스템, 재난정보시스템, 환경감시 시스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을 통합 플랫폼 기반사업으로 연계하고 외부구축 시스템으로는

U-긴급영상지원서비스, 112긴급출동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로써 U-CITY통합관리센터에서 24시간 CCTV, 재난, 환경, 독거노인 응급상황을 한 번 더 꼼꼼히 관제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안전한 완주 만들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은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통하여 각종 방범, 방재, 재난과 사건 사고로부터 더욱더 안전하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됐다"며 "앞으로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안전한 완주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생애과정별 생활 터 집금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 생애과정별 맞춤형 프로그램 호응

근력강화 요가교실 '인기'

무주군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애과정별 생활 터 집금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애과정별 생활 터 집금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세대와 성별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건강기초검사를 비롯해 운동과 금연, 영양교육, 심뇌혈관 및 치매 검사 등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노출되기 쉬운 질병과 간과하기 쉬운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근력강화를 위한 요가교실은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8월까지 매주 1회씩 전문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모 할머니(무풍면 70세)는 "평생 농사를임 하다 보니 몸이 굳어져서 이쁜 곳도 많은데 선생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다 보면 시원해진다"며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니까 웃기도 많이 웃고 정말 재미있다"고 전했다.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과정별 생활 터 집금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의료기관과 밀리 떨어져 있는 취약지역 또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로당을 수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0개 경로당에서 운영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총력

무주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중세)는 무주·진안군과 연결지인 충남 금산군 재원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것에 대해 청정지역인 무주·진안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무주국유림관리소와 무주군은 즉시 헬기를 이용해 관리소 관할지역 경계인 무주·진안군 연결지역 반경 3km 내의 소나무림에 대하여 항공예찰을 하고 고사목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주·진안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산불전 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예찰

방재단 등 50여명과 관리소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 및 공중에서 입체적인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하고 올해는 건조한날이 많아 산불위험이 높고, 최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과 연결한 곳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숲 가꾸기 사업 전개

장수군은 아름다운 산림조성을 위해 2016 금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군은 올해 22억2천만원을 투입, 총 1,660ha를 대상으로 큰나무 가꾸기 250ha 어린나무 가꾸기 510ha, 조림지 가꾸기 900ha를 추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우선 9천8백여민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천면 장판리 등 110ha에 대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중 큰나무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에 착공, 나무의 원활한 생육을 촉진하고 경제수입 조성으로 산지자원을 촉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6~7월 중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 조림목의 건실한 입목 생육을 촉진시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해 아름답고 푸른 숲을 가꿔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군, 시설물 표본 안전점검

장수군은 해빙기를 앞두고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관내 대형공사장과 중대형 공사장 노후·불량 건축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표본안전점검을 실시, 민약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과 병행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김윤섭 부군수를 단장으로 1개반 8명의 해빙기 전담반을 편성해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절개지 및 낙석취약지역, 노후교량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기타 재난취약시설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10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 인명피해 위험시설은 관리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군, 영세농 물류비 지원

무주군은 소규모 영세농가의 물류비용(운반비 1천 원/20kg)과 공판장 수수료(판매대금 기준 7%)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는 소량의 농산물 생산으로 공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농산물 공동 집하장(물류터미널)을 통해 출하를 해야 하는 영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에 주수를 두고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공동 집하장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지면적 15,00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자담 30%)으로 1~2월에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3월 중, 3~10월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군 농업소득과 강령면 농업마케팅 담당은 "물류비용 지원은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면서 판로를 개척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대상자 선별에 공정을 기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3월 월례조회 개최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7일 군청 강당에서 3월중 월례조회를 열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이항로 군수는 지난 두달여 동안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직자 아카데미, 독도 아카데미 및 글로벌 배낭연수를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 시행하고 특별포상유가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관련 조제를 개정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간 화합과 소통 강화에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또한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로 공무원의 의무개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청렴은 선물을 주고 받는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부터 실천하여야 한다. 군수인 내부터 관행을 개선하고 대신 인간적인 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행 전담사업자
063-430-2951